한겨울 전남 초등 교사 연수 열기 뜨겁다

전남도교육청 2월 19일까지
429개교 교사 436명 대상
교육과정 역량 키우고
코로나 '원격+등교수업' 대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열기가 뜨겁다.

전남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교사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역량을 키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블렌디드러닝(원격수업+등교수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갖는다고 밝혔다.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29개교 교사 436명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수, 오후에는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 다양한 교육적 상황(학교·학급 실태, 코로나 19)에서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적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수준 교육과정 연수는 학생 성장을 위해 교사 개인이 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급 및 교사관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직접 재구성해보고 사례를 나누는 실습형으로 이뤄진다.

블렌디드러닝 연수도 교육과정 재구성·수업설계 방법, 원격 수업 질 향상을 위해 '도입(출결확인, 온티켓)-전개(학생참여 중심 에듀테크 활용법)-정리(과제 확인, 평가와 피드백)' 등 한 과정을 교사들과 함께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25일에는 각각 신안교육지원청과 구례교육지원청에서 교사 29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수를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과정 역량을 키우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들과 함께 나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또 "등교와 원격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혁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만의 수업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의 삶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나경수 교수팀 논문, 국제학술지 표지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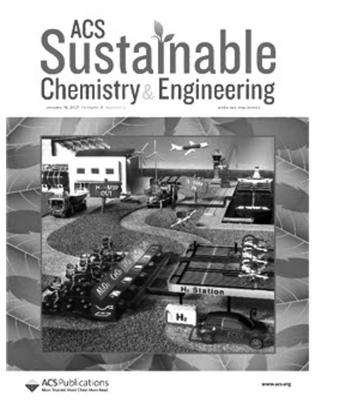
미국화학학회 발간 학술지

전남대학교 나경수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국제저명 학술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전남대 나경수 화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18일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ACS Sustainable Chemistry&Engineering(영향력 지수 7.632)'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나경수 교수팀(나노구조촉매연구실)은 수소를 저장하고 있는 액체 상태의 유기화합물로 알려진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 물질로부터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시킬 수 있는 불균일계 촉매를 개발했고, 이에 따른 촉매적 현상을 실험 및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낸 촉매 현상 및 촉매의 역할에 관한 지식들은 다양한 액상유기수소운반체로부터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성능 촉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수소에너지혁신기술사업 및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책임자인 나경수 교수를 비롯해 나노구조촉매연구실 김용석 석박사통합과정생, 송요한 석사과정생, 최유열 석박통합과정생이 참여했고, 화학교육과 고경철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박지훈 박사 및 정관용 연구원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한전, 인공지능 전문교육 과정 개설

기업체 재직자·지역민 등 대상
미세전공 '한전 나노 디그리'

전남대학교가 한국전력 재직자들을 위해 인공지능 전문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 과정을 개설한다.

'나노 디그리'란 대학에서의 주전공, 부전공처럼 미세전공을 일컫는 말로, 디지털 전환 시기에 필요한 신기술을 배우는 미래 선도형 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무 대표기업에 대해 4차 산업맞춤 온라인 단기 직무인증 과정인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대 평생교육원(원장 김성준)은 이미 운영중인 '인공지능 매치업 프로그램'에 한전이 자체 개발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추가해 독자적인 '한전 나노 디그리'(KEPCO Nano degree)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인공지능 매치업 프로그램'은 민·관이 합동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현직 업무를 연결해 교육함으로써 직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 것으로, 기업체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민, 대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전이 자체 개발한 데이터분석 과정에서는 데이터분석개론을 비롯해 데이터 통합플렛폼, 파이썬 데이터 활용 실습 등을 함께 배우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 온라인화상회의실구축사업 선정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광주 테크노파크·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선정,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에 최첨단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구축해 지역사회에 개방한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활동 위축과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개방형 화상회의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 전문기관, 대학의 산학협력단 및 창업보육센터, 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별 협·단체 등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의 기업지원 기관에 올 연말까지 화상회의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화상회의실은 지역 중소벤처 기업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방 및 온라인 홍보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학생역량 강화'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 공유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재학생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1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대 교육혁신연구원 비교과교육지원센터는 오는 26일부터 학교 호심기념도서관과 학생회관 등에서 '비교과 교육과정 성과관리 고도화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일환으로 펼쳐진 2020학년도 각 학부(과) 및 기관의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열린다.

성과공유회는 내달 24일까지 발표회와 판넬 전시 등으로 진행되며 ▲각 학부(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각 기관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교직원 대상 성과공유 발표회 ▲성과공유회 결과 책자 배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K.기업두드림 프로그램'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코로나19'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전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

동강대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양용준)는 최근 교내 도서관에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프로그램으로 'K.기업두드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산업체 정보탐색 등 취업 준비가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강의 중심이 아닌 NCS(직무역량) 기반의 실전 중심 교육으로 이틀간 진행됐다.

학생들이 취업 희망 기업을 찾고 직무분석을 통해 자신에 맞는 취업처나 분야를 정하고 계열별 전담 컨설턴트의 코칭을 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